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월 2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요구했다.

“한·미 FTA 2월 임시국회 졸속 처리 반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월 2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월 임시국회 비준·처리 논의를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와 청문회·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범국본 오종률 공동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에서 한·미FTA에 대한 논의에 앞서 통외통위는 한·미FTA청문회와 8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약속을 국민 앞에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면으로 한·미FTA 국회상정을 요구하고 농업의 기초연구기관인 농업진흥청을 없애는 등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비상긴급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시국선언·국정조사 요청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우정규 회장은 선언문 낭독에서 “노무현 정부는 더이상 임기말 책임지지 못할 짓을 중단하라”며 “민심을 저버리고 한·미FTA를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있으면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민주노총 허영규 부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한국낙농우협회 이승호 회장 등 노동계와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상임위 상정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양돈**